KT 중소기업에 수수료 깎고 기술이전 압박 '의혹'

KT "2년마다 수수료율 재조정하기로 애초부터 합의했다"

업체 "재계약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에 제소

KT가 한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고 심지어 KT 계열사에 기술 이전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최근 모 언론사를 통해 제기됐다. 최근 KT에 따르면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고 수수료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A모 중소기업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그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다. 2009년 KT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이 업체는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KT는 장비 지원과 영업을 맡았다.

이 업체와 KT가 한 계약서를 보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 2011년부터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결제 내역 문자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계약 1년 뒤부터 KT가 수수료율을 깎자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첫 계약 당시 매출의 3.7%였던 수수료율이 재계약 때마다 낮아졌고,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는 1.5%까지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게다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H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기술 자료도 받아갔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결국 KT의 재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A모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기술을 베껴서 만들고 있는 KTH에게 기술조언을 해달라고 하길래 '내 목 졸라서 나보고 직접 죽으라고 하는거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KTH가 추진한 사업은 일종의 기업용 사내 메신저 서비스로 A사의 서비스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기술 개발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 "사업 초기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A사와는 2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애초부터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은 낮아졌으나 KT가 A사에 지불한 수수료의 총 금액 자체는 계속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선진노사문화 정착 위한 '한마음 대회'

전주상공회의소, 노사화합 선언문 · 등산대회 · 레크레이션 등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3일 전주시 양묘장과 완주군 묵방산에서 제22회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송금현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 최홍철 한국노총 전북지부 부의장, 양헌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기업체 임직원 등 3백여명이 참여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번 노사한마음 다짐대회가 노사의 힘을 결집시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사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한 3백여명의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노사 한마음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후 치러진 등산대회에서는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한팀이 되어 진행, 그 결과 (주)휴비스 산악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에는 (주)전북은행, (주)하이코리아 팀이, 준우승에는 (주)전주페이퍼, 아데카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 남원공장 산악팀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참가선수들이 선정한 인기상을 비롯한 노사화합상, 자연보호상, 페어플레이상, 협동상, 전북산악연맹회장상 등 총 18개팀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으며, 끝으로 다채로운 레크레이션 행사와 장기자랑에 이어 경품추천으로 대회는 마무리 됐다.

아울러 이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우수기업인 동서콘트롤(주) 박춘경 대표이사, 대주코레스 박주정 대표이사, (주)금강유리 김정곤 대표이사가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김제지사, 교통 취약 계층에 안전 용품 전달

한전 김제지사(지사장 안용진)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지역 사회 안전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관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교통 취약 계층에게 교통 안전 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제시 관계자 및 한전 김제지사 사회봉사단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자(신풍동, 78)씨 등 인근에 거주하는 사회적 교통 약자 30명에게 안전모와 후미등을 직접 지급했다.

안용진 지사장은 "이런 뜻깊은 일을 김제시와 함께 하게 돼 매우 보람되다"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시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와 한전 김제지사는 연말까지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교통 약자를 직접 찾아가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2018년도 소상인 백년가게로 선정된 경원동의 '탑외국어사' 에서 백년가게 현판식이 개최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년가게 6곳' 선정

현판 제막 행사 통해 소상인들의 자긍심 고취 · 지속경영 노력 격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2018년도 소상인 백년가게'로 선정된 전북지역 6개 가게(전주시2개, 정읍시3개, 고창군1개)를 대상으로 현판식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백년가게에 선정된 곳은 3일간(11월5일, 11월6일, 11월9일) 현장 행보를 통한 전북중기청장 주재의 릴레이 현판식 행사를 진행한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인(도소매, 음식업) 또는 가업을 이어 받아 운영중인 한우물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금년도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먼저 이날 오후에는 전주시에 위치한 2개 가게(덕진동의 '늘채움 앤부대찌개', 경원동의 '탑외국어사')에 백년가게 현판식이 개최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전북중기청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또한, 현판 제막 행사 이후에는 김광재 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가게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업체의 성장스토리 및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오늘 현판식을 갖는 백년가게들은 30년 이상 한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나름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를 가지고 극복해온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백년가게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도록 정부가 잘 지원하고 보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전북에 6개 업체가 발굴 되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우수 소상인 백년가게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추가 선정되는 백년가게에 대해서도 현판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목련회, 하반기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지난 3일 전주, 익산, 군산지역에서 '2018 하반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역 봉사활동에는 목련회 회원 및 가족 30여명,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여,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공터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여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익산,군산지역 봉사활동에는 목련회 회원 10여명씩 각각 팀을 이뤄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시온육아원, 군산시 개정동에 위치한 모세스영아원을 방문해 원내청소 및 물품전달을 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전북은행 목련회 김태희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 목련회는 복지시설방문 및 물품전달, 저소득가정 학생에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4분기 농가소득 증대추진 전략회의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최근 수확기 농가소득 추진사항을 전파하고자 '4분기 농가소득 증대 추진 전략회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추진 목표, 3분기까지 진도를 점검하고 수확기 농가 경영비 절감방안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농정방향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도 본부장은 "농가소득은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근간으로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꿈꾸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환원 된다"며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농가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때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가 앞당겨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3,824만원으로 도시근로자(5,870만원) 대비 65.2%에 불과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농촌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농협에서는 2017년 초부터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전사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